

## 성병의 올바른 지식

### 성병은 안심할 수 없어

전쟁이 끝나면 성병이 만연하고 사회가 혼란하면 성병이 번창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페니시린이라는 좋은 약이 나온 뒤에는 성병이 크게 줄어 들었다. 그때문에 이제 성병정도는 안심해도 좋다고 하거나 감염되더라도 약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프지도 않고 큰 병인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결국은 유산이나 병신을 만드는 매독(梅毒)같은 무서운 성병은 국민건강을 위해 예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노인들의 매독은 꼭 오래 된 것인지도 모르나 어린이의 매독은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매독은 대부분이 최근에 감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살것인데 자기인생을 깎아먹고 아기도 낳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생각하게 한다.

성병은 밖으로 나타나는 숫자만 가지고는 그전도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옛날부터 성병을 화류병(花柳病)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숨어서 의사와는 담을 싸놓고 성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줄 안다. 이처럼 성병환자의 숫자가 사실상 늘어나고 있는데 성병의 증가추세는 일본이나 미국은 말할것도 없고 전세계의 7할이상의 국가에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성병의 무서움이 밖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때문이다.

예전에는 성병에 걸리면 매독의 경우 국부(局部)에 작은 통알만한 덩어리가 생긴 다든지, 임질이면 소변볼때 아프다든지 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증세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본인 자신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자가 조심하면

특히 여자들은 성병발생장소가 눈으로 볼 수 없는곳에 생길뿐만 아니라 소변을 볼때도 통증이 가벼우므로 성병에 걸린 포적을 알기가 어렵고 뺨즈에 약간의 색깔이 묻은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이리하여 성병은 본인도 걸린줄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건강인과 구별하기도 어려우므로 모르는 사이에 성병은 점점 늘어가게 마련이다. 이것은 신희동이 꺼진 도로에서 차가 연쇄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은 것으로 매우 무서운 일이라 할 것이다.

### 무서운 무지의 피해

이러한 무지와 폭주때문에 세상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수년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있다. 애라바마주에서 17세의 처녀가 매독에 걸린 것을 모르고 4개월동안에 14명의 남자와 성교섭을 가졌는데 그중 4명이 매독에 감염되었다.

이들 4명은 다시 29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져 그중 11명의 감염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연속적인 파급효과를 처음의 소녀를 통하여 141명의 조사자중 36명의 매독감염자를 찾아내게 하였는데 이 사실이 애라버마의

추적으로 발표되고 세계에 큰 쇼크를 준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결코 이웃집의 불처럼 쳐다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성병만연은 결국 성도덕의 문란에 기인한다.

길거리에서는 성에 관한 영화나 책자가 범람하고 환락가의 불빛은 젊은 사람들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임신중절이 간단히 될 수 있는 것도 성문란에 박차를 걸었다. 그위에 지금 사람들은 성병의 무서움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성병의 무서운 실예를 가까이서 보고 실감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페니시린덕택으로 중한 성병환자 수가 감소되었으니 실예를 간단히 볼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페니시린덕택으로 성병이 줄어들면 문제가 없겠으나 중도에서 민간요법을 한때문에 페니시린의 효과가 없는 성병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성병이 증가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 무서운 감염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들어 성병환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지난 두달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가 예년에 비해 2~3배늘었다고

말한다. 성병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① 퇴폐풍조 ② 긴 겨울방학 ③ 성병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놀라운 사실은 전체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0%가 20대의 젊은 층이라는 것이다.

요즘 나돌고 있는 성병의 종류와 치료 및 비용을 알아보자. 성병의 종류는 크게 임질·매독·연성하감(軟性下疳)·성병성 임파육아종·서혜임파종이 있다. 그러나 요즘 가장 흔한 병은 임질·매독·연성하감의 3종류이며 성병성 임파육아종이나 서혜임파종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임질이 성병의 대명사(代名詞)처럼 불리는 까닭은 매독에 비해 잠복기가 짧아 증세가 빨리 나타나고 감염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매독은 잠복기간이 약 20일로 임질에 비해 10배 이상 길다. 1명의 임질환자는 20일동안 5백 12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수 있지만 매독은 이 기간동안 단 1명에게만 감염시킬 수 있다. 또 1명의 임질환자는 60일뒤에 5억 3천 6백 90만명에게 무서운 병을 감염시킬 수 있다.

### 99%가 불결한 접촉서

성병의 99%는 윤락(淪落)행위자.

접대부(接待婦)등 성병을 가지고 있는 불결한 여성과의 성교로써 감염된다. 이밖에 임질환자가 가정에서 있을때 요강을 같이쓰면 임균이 들어있는 농(膿)이 여성의 성기에 묻어서 발병(發病)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목욕탕에서 읊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매독의 경우 성교(性交)이외에도 「키스」나 매독균이 감염된 부위(部位)를 상처입은 손으로 만질때 감염될수 있다. 많은 남성들이 성병이 아닌 비임균성 요도염(非淋菌性尿道炎)이나 만성전립선염(前立腺炎)을 앓을때 성병으로 오인(誤認)하여 고민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성병으로 오인되기 쉬운 이러한 병들 때문에 가정분화나 이혼(離婚)소송까지 일어나는 일도 수 없이 있다는 것이다. S회사의 K씨는 10일동안 회사일로 부산(釜山)에 출장중 술집 접대부와 하룻밤을 잔 일이 있었다. 그 뒤에 집에 돌아와서 소변을 볼때마다 뜨끔뜨끔하고 농이 나와서 성병에 걸린줄 알았다. 따라서 부인과의 접촉을 피해왔다. 부인은 K씨가 출장도중 바람을 피워서 병이 생긴줄 알고 매일 냉전을 계속 이혼 한발짝앞까지 이르렀다. K씨는 친구의 소개로 유

명한 비뇨기과 의사 C박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다. C박사의 진찰결과로 K씨는 만성 전립선염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K씨는 부인에게 성병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뒤 다시 다정해졌다.

### 소변 볼때는 심한 통증

임질은 성교 뒤 2~5일 안에 요도(尿道)부위가 근질근질하고 요도구(尿道口)가 붓고 빨갱게 된다. 이때 누런 분비물이 나오고 소변 볼때 요도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것처럼 화끈한 통증을 느낀다. 심하면 피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매독은 성교 뒤 14~21일만에 성기(性器) 끝부분에 구진(丘疹)이 생긴다. 구진은 차차 궤양(潰瘍)을 형성, 움푹 파이게 된다. 2~3개월 지나면 붉은 반점이 생기고 머리털이 빠지며 임파선이 붓게 된다. 그냥 방치하면 2~3년 뒤에 결절성(結節性) 「굴마」종(腫)이 피부와 접착에 생긴다.

연성감염은 접촉 뒤 5일이 지나면 증세가 나타난다. 병원균이 침입한 부위에 구진(丘疹)같은 부스럼이 생긴다. 이 구진은 점점 수포성 물집을 형성, 파열돼서 얇은 궤양을 형성한다. 이 궤양은 매독과 달라서 심한 통증

이 있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

### 치 료

임질균은 대단히 약해서 건조한 공기 중에서 금방 죽는다. 가장 좋은 치료약은 「페니실린」이다. 보통 1백 50만~2백만 단위의 「프로카인·페니실린 G」 주사를 매일 1회씩 2~3일 맞으면 완치된다. 먹는 약으로는 「엠펜실린」(상품명 엠펜실린·펜브리진)을 하루 2g씩 (8알) 4회(2알씩) 나누어서 5~7일 동안 계속 복용하면 완치된다.

성병은 다른 병보다 더욱 조기치료가 필요하고 또 효과도 거두기 쉽다. 치료하기 어렵다는 매독이라도 감염 2~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여 철저히 하기만 하면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러나 증상이 없어진 것과 완치된 것과는 다르므로 증상소멸후에도 세균검사를 철저히 하여 완치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불행히 부부간의 한쪽이 성병 감염을 받았으면 다른 쪽도 감염되는 핑퐁 감염을 가져오므로 한쪽만의 치료로는 불완전하고 부부가 함께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완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치료기간중에는 성교섭

음주, 과로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연성하감에는 쉼파제

매독은 항생제로 잘 낫는다. 특히 「프로카인·페니실린 G」가 좋다. 이 주사약(2백만단위)은 매일 한번씩 10~12일동안 계속 맞는다. 이약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2백 40만단위의 「벤자린·페니실린」을 맞도록 한다.

1주일에 한번씩 2~4회 맞아야 한다. 먹는약은 「테트라사이클린」계통의 약이 잘 듣는다. 하루 3g(12알)을 4회 분복(分服)해서 약 15일 동안 먹는다. 비용은 제약회사 제품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연성하감은 「페니실린」으로 치료할 수 없다. 「테트라사이클린」「스트렙토마이신」「셀파」제가 좋은 약이다. 「테트라사이클린」은 하루 2g을 0.5g씩(2알) 4회 분복한다. 「스트렙토마이신」은 하루 2cc씩 5일동안 주사를 맞는다. 또 내복약으로 「간트시신」이 있다. 이약은 하루 4g을 4번 나누어 계속 복용하면 된다.

병치료는 비노기과 전문의사의 정확한 진찰과 검사를 받은 뒤에 치료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사의 진단없이 아무 항생제나 함부

로 복용하면 병이 낫기는 커녕 몸안에 내성(耐性)이 생겨 더욱 치료하기 힘들게 된다. 되도록이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성병검사 비용은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임질 검사 비용은 1천~2천원, 매독의 혈청검사법(VDRL)은 5백~1천원. 연성하감은 1천원의 세균검사 비용이 필요하다.

### 포경은 수술해야 좋아

임질은 불결한 성교뒤에 바로 소변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콘돔」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성교뒤 22시간안에 전문병원에 가서 8천배의 물에 탄 「과망간산칼륨」이나 2%의 「프로탈콜」이나 5백~1천배로 희석한 초산은 용액등으로 세척하면 완전예방할 수 있다.

한편 매독이나 연성하감도 불결한 여성과의 접촉뒤 비누물로 씻으면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또 포경(包莖)인 남성은 성병에 더 잘 걸리므로 수술을 받는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성병환자는 먹는 음식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술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기름기 있는 돼지고기·닭고기·햄고  
관음식이 성병을 악화시킨다는 속설  
(俗說)은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  
다.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스런 장소나 사람을 접하지  
않는 것이다. 상습 매춘부는 약 20%  
가 매독환자로 알려져 있고 임질 기  
타 성병자도 상당 수 있어 전체의 40

%는 성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들  
과의 접촉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수  
있다.

그밖에 바, 카바레, 요정, 터어키  
탕, 다방여성뿐 아니라 일반여성들에  
게도 성병이 퍼져 있다. 따라서 성병  
을 예방하려면 부부이외의 성교섭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알게  
될 것이다.

#### <건강상식>

### 보통감기(感氣)와 다른 「알레르기성 비염」

금년에는 유별나게 늦추위가 심해서  
예년보다 감기가 더 많은 것 같다. 감  
기하면 재채기 콧물 코막힘 따위의 코  
의염증증세, 즉 비염(鼻炎)으로부터 시  
작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누구나 흔히 감기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감기가 아닌. 병이 몇가  
지 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하고 우리나  
라에서 보통 감기와 혼돈 또는 오진(誤  
診)되기가 일수인것이 알레르기성 비염  
(鼻炎)이다. 보통 감기는 바이러스( .

過性病原體)로 인한 감염성비염(鼻炎)  
이고 알레르기성비염은 비점막(鼻粘膜)  
의 아토피성반응에서 오는것이다. 이때  
문에 알레르기성 비염(鼻炎)은 보통감  
기치료로 낫지 아니하고 경과중에 만성  
상두동부비강염(上頭洞副鼻腔炎)(축농  
증등)을 병발하기 쉽다.

또 30~60%상태에서 기관지 천식을  
속발하게 된다. 감기와 알레르기성 비  
염(鼻炎)은 원인과 병세가 다르지만 비  
점막(鼻粘膜)의 염증이라는 공통병리태  
문에 증세가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신중히 관찰한다면 알레르기  
성 비염과 감기와는 분명히 다르므로 의  
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